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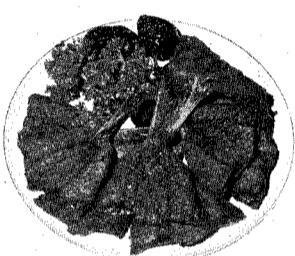






# 정·어·리

## 값싸고 영양많은 동물성단백질



공종	구분	항목	개소	시기 및 방법	촬영상 주의사항과 설명
1) 제작 운반 가설치	○ 시공 관리	○ 야-도 등 ○ 사용선박 기계류 ○ 합 대 ○ 봉강(棒鋼)	○ 야-도설비 ○ 크레인 등 ○ 제작합대 ○ 반 입 ○ 보 관 ○ 철 균	○ 착공시전경 ○ 작업 시 ○ 착 공 시 ○ 반 입 시 ○ 반 입 후 ○ 가 공 시 ○ 가 공 시 ○ 가 공 시 ○ 가 공 시 ○ 조립, 결속	○ 야-도 전경 및 설비를 알 수 있도록 촬영 ○ 작업마다 사용하는 기계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 내리는 상황 ○ 첨목의 배치, 뛰어놓은 상황 등  ○ 큰 봉강(棒鋼)의 공장기공상황 ○ 절단기, 구부리는 기계 등에 의한 가공상황 ○ 첨목의 배치, 뛰어놓은 상황 등 ○ 조립, 결속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촬영 ○ 조건의 형상 ○ 제작상황, 대표적인 것 ○ 도포상황(박리제용기를 동시촬영)
	○ 형 틀	○ 조근(吊筋) ○ 제 작 ○ 박 리 제 ○ 조 립	○ 쥐 부 ○ 제 작 ○ 도 포 립 ○ 청 소 ○ 타 설 시 ○ 짐 내 립 ○ 콘크리트 타 설	○ 쥐 부 ○ 제 작 ○ 도 포 립 ○ 청 소 ○ 타 설 시 ○ 짐을내릴때 ○ 타설시, 타 설방법마다 ○ 조 립 ○ 해 채	○ 형틀 청소상황 ○ 타설면의 불순물제거, 살수상황 ○ 운반차에서 짐을 내리는 상황 ○ 펌프, 스크럽부, 시드, 콘베아 등에 의한 타설방법 및 타입상황 등
	○ 발 판	○ 조 ○ 해	○ 조 립 ○ 해 채		
	○ 품질 관리	○ 봉 강 ○ 콘크리트	○ 시 험 ○ 형상검사 ○ 시 험 ○ 현장시험 ○ 강도시험	○ 시 험 시 ○ 형상검사시 ○ 시 험상황, 공시체작성 및 양생상황 ○ 스란뿌, 공 기량, 온도 의 측정 및 시험상황 ○ 강도시험시	○ 시험의 상황  ○ 콘크리트 향 참조
	○ 기성 형 관리	○ 철 균 ○ 형 틀 ○ 콘크리트 ○ 마-긴구 ○ 완 성	○ 형상측정 ○ 조 립 ○ 조 립 ○ 형상측정, 외관 ○ 번 호 ○ 완 성 품 ○ 가치(假置)	○ 조립 완료 점 사 시 ○ 조립 완료 점 사 시 ○ 타설완료시 ○ 완료 시 ○ 완 성 시 ○ 가치상황	○ 대표적인 가공철근의 형상측정 을 알 수 있도록 촬영 ○ 조립완료상황을 알 수 있도록 촬영 ○ 조립완료상황을 알 수 있도록 촬영 ○ 타설완료상황을 알 수 있도록 촬영 ○ 번호 등을 넣어서 촬영 ○ 형이 다른 블럭 등의 사진은 개수에 일련번호를 붙여서 제 작개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사진은 불필요함.
2) 거치	○ 시공 관리	○ 사용선박 기계기구류 ○ 거 치	○ 운반, 거치 선박 기계 ○ 거치작업	○ 작업 시 (정면, 측면) ○ 작업 시	○ 사용하는 선박기계류를 알 수 있도록 촬영 ○ 거치작업을 알 수 있도록 촬영  ○ 목지(目地)측정시와 법선(法 線)출입의 측정시, 기타에 대 하여는 감독의 지시에 의함 ○ 거치의 전체를 알 수 있도록 촬영
	○ 기성 형 관리	○ 기성형측정	○ 기성형측정 작업	○ 작업측정시	

# 어떤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할 부동산투기

광명시 아파트 분양신청 접수장- 근처 빈터에는 자가용들이 줄을 지어 늘어서 있고 분양동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 대부분 두툼한 핸드백을 든 부인들과 부지런히 명함을 나누어 주고 있는 복덕방 직원들이다.

“당첨만 되면 웃돈 없어서  
금방 처분해 드릴테니 2천만원  
만 써 넣으십시오” “2천만원은  
너무 많지 않을까” “어허, 2천  
만원을 써 넣어야 당첨됩니다.”

부덕방과 부인들파의 대화이다. 금방 보아도 실수요자가 아닌 투깃꾼임을 알 수 있다. 실수요자로서는 감히 엄두도 못낼 웬만한 서민주택 한채값 인 채권액을 겁없이 써넣고 거기다 당첨만 되면 끄리미엄까지 더 얹어 팔 수 있다는 두둑한 배짱들이다.

비단 이 아파트 뿐아니라 이  
름있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현  
장에는 어디서나 으례히 볼 수  
있는 모술들이다.

부동산투기의 손은 아파트에서 그치지 않고 제주도로 합천으로 대전으로 전국 곳곳 뻗치지 않은 곳이 없다. “△△지역이 곧 개발된다” “사무기만 하면 한달안에 두배를 받을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소문과 함께 대지(垈地)에서 임야·논밭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는다.

뜨거운 투기의 회오리 속에  
사람의 손을 거치는 사이 조  
용하면 시골의 땅값을 몇배씩  
게 만든 뒤 투기꾼들은 썰물  
처럼 빠져나가버린다. 남은 것  
소위 막차를 탄 피해자들  
뿐. 땅을 치고 한탄해봐야 시  
보다 더무니 없이 비싸게 산  
값을 보상받을 길이 없다.  
처음부터 아예 쓸모없는 야  
인거나 난이 땅을 그럴싸한

유혹으로 사게하는 사깃꾼들도 많다. 그저 사두기만 하면 잠깐 사이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는 꾀임에 빠져 땅을 보지도 않고 돈만 맡기는 것이다.

이런 사깃꾼들일수록 처음 몇번은 서류상으로 사고판 척하면서 제법 많은 웃돈을 얹어주지만, 어느 단계에 가면 깡그리 먹고 날라 버린다. 뒤늦게 이상히 여겨 확인해 보면

아무 쓸모없는 야산이거나  
예 남의 땅이다.

물론 부동산 투기로 제법  
은 돈을 벤 사람들이 우리  
변에는 많다. 아무 하는 일  
이 빙동빙동 놀며 일년에 몇  
의 투기로 잘 먹고 잘 사는  
류들이다.

“뭐니 뭐니 해도 돈을 벌 있는 것은 부동산밖에 없다. 제한된 국토에 인구는 많은

이 자꾸 오르면 다른 상품  
서비스의 가격도 뎅달아 올  
결국 피해는 모든 국민이 입  
마련이다.

둘째, 우리 나라 같은 발  
도상국가는 새로운 생산시설  
확장에 많은 투자를 필요로  
다. 투자는 국민들이 한푼  
푼 모은 저축으로 충당하는  
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축  
도이 생사에 투자되어 경제

발전하고 그 이윤이 다시 국가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투기가 일어면 모든 돈이 그 쪽으로 몰리게 마련이다. 손쉽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저축이 없으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는 비싼 이자율고서라도 외국빚을 얹어 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많은 국민은 물론 나라의 경제에도 큰 피해

측면 말고도 사회적으로 더욱  
큰 해독을 끼친다.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인 국민들의 근  
면·성실성을 좀먹고 있는 것  
이다.

아무 기술도 학식도 없는 사람  
이 아파트를 몇 번 사고 팔면  
수천만 원을 벌어 버리고 땅을

몇번 굴리면 성실한 근로자가  
몇년 걸려 벌 수 있는 돈을 순  
식간에 손에 넣고 으스대는 놀  
을 보고 일할 의욕을 잃지 않  
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쉽게 번 돈일수록 헤프게 쓰기 마련이라 투깃꾼들은 사치와 낭비풍조까지 일으켜 건전한 근로정신을 더욱 흐리게 한다. 땅값 집값을 올려놓아 헛문 두문 모아 나집을 마련하는 많은 선량한 근로자들을 더운 살마시킨다.

부동산투기는 어떤 일이 있어  
어도 추방해야 한다. “다른 사람  
이 하니 에라 나도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모두가 덩달아  
날뛰면 부동산투기는 영영 부

리 뽑히지 않고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다.  
우리 모두가 부동산투기의  
폐해를 확실히 인식하고 힘을  
합쳐 우리 주변에서 이를 물어  
내기 위해 노력할 때 투기는

물고서라도 외국빚을 얻어  
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부동산투기는 이런 경제